



World Ocean Forum 2022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일보사

주관



KAMI
KOREA ASSOCIATION OF MARINE INDUSTRY

(사)한국해양산업협회

올해 세계해양포럼 특징은?

하나

역대 최초 투트랙 방식의 기조세션
‘엑스포’와 ‘해상도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둘

조선 · 해운 · 항만 세션 통합
조선 · 해운 · 항만 전문가를 한 자리서 만난다

셋

해양산업 분야별 전문가 ‘에필로그 세션’서 총집결
대한민국 해양산업 청사진 제시한다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Ocean as Uniters,
Pursuing Global Cooperation for the good of the planet

기조
세션

초해양시대, 세계해양포럼은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를 올해 대주제로 확정했습니다. 11개국 90명의 국내외 연사가 출연해 총 10개 세션에서 해양의 미래를 제시하고 토론합니다. 25년간 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미국의 알렉스 레빈슨 태평양환경공동체(PE) 대표가 기조연사 나서 초해양시대,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제안합니다. 이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사회로 '초해양시대-해양과 엑스포'란 제목으로 특별좌담을 가집니다. 또한 부산 해상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타이 마타모베 미국 오셔닉스 설립자가 기조세션 지정 토론자로 '초해양시대, 기후위기와 해상도시'에 대해 강연합니다.

기조
연사



알렉스 레빈슨 Alex Levinson

태평양환경공동체(PE) 대표

미국 시에라 클럽 선임 에너지 캠페인 이사

미국 시에라 클럽 법률 이사

연사



이타이 마타롬베
기조

오션릭스 설립자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수석고문



스타브로스 하찌그리고리스
탈탄소

해양컨설턴트
Maran Gas Maritime 사장
(전) Maran Tanker Management 사장



오널프 얀 로세프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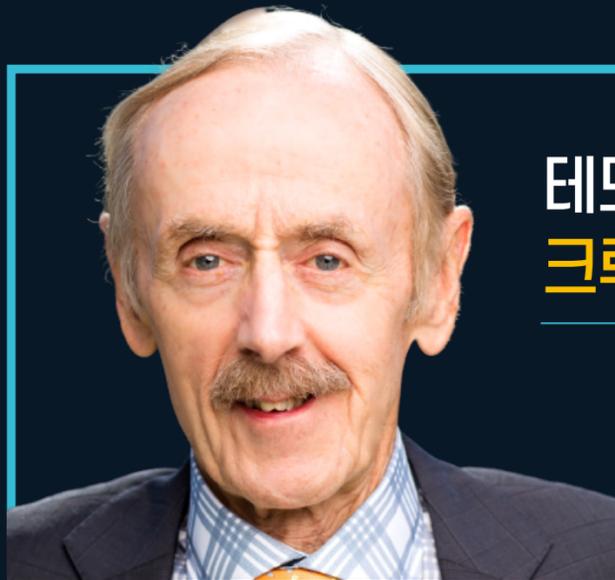
노르웨이 해양과학기술원 수석연구원
AEGIS EU 프로젝트 연구원
Norwegian Forum for Autonomous Ships 총괄매니저

연사



마르시우 카스트로 드 수자
수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양식과 선임수산업담당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물무역소위원회 간사
글로브피쉬(GLOBEFISH) 조정관



테드 블라미
크루즈

차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회장
(전) Mckinsey and Company 호주 대표이사
(전) Sydney Ports 초대회장



대나카 사부로
크루즈

일본 크루즈 연구소 부소장
(전) 요코하마 항 선장
(전) 해운사 NYK Line Co., Ltd. 항해사

세션

[조선·해운·항만]

Track 1 : 탈탄소, 해양탄소중립 - 후손에게 남겨줄 최고 자연유산

Track 2 : 디지털 전환, 해양 디지털 전환 -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간

Track 3 : Wrap-up

올해 세계해양포럼은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요 키워드를 통해 글로벌 동향 속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크루즈] 한국형 크루즈 실현으로 아시아 크루즈 동반성장을 이끌다

한국형 크루즈 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형 크루즈 실현을 통해 아시아 크루즈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수산] 메가 FTA 추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한국 수산 위기 혹은 기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 구조 속에서 세계 수산업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수산업이 경쟁우위를 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를 논의합니다.

[KIOST 스페셜] 우주를 넘어 심해로...탐사과학과 미래 사업

동해는 해양자원의 보고로 심해연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KIOST스페셜은 세계최초의 해저과학 기지를 구축으로 인간의 해저활동 확장성을 실현하여 미래 수중도시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합니다.

[해양지수] 글로벌 해양도시 지수와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세계해양포럼은 신뢰성 있는 글로벌 해양도시 지수를 개발, 세계해양포럼만의 글로벌 브랜드 위상을 제고합니다.

세션

[해양디자인] 중소 선박 디자인의 동향과 미래

세계해양포럼은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연계해 기술개발 성숙기에 접어든 해양수산업을 브랜딩·고급화해 디자인 산업과의 연계 방향을 논의합니다.

[해양인문학] 어촌다움 해양인문학으로 풀다

최근 어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양인문학 세션은 친숙한 어촌의 모습을 문화콘텐츠적 시각으로 재해석해봅니다.

[해양정책]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전략 리포트

많은 선진국이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가의 해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양정책 세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범국가적 해양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논의해봅니다.

[에필로그] 초해양시대, 협력과 공존으로, 번영의 길을 찾아서

세션별로 다룬 해양분야의 모든 주제를 총정리합니다. 올해 세션별 주요 연사와 기획자를 초청하여 서로 다른 해양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통의 대안을 마련합니다.

2022 세계해양포럼 온·오프라인 개최 사전등록 진행중!

사전등록자에 한해 발표자료 파일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WOF 등록키트를 드립니다.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주관  KAMI
KOREA ASSOCIATION OF MARINE INDUSTRY
(사)한국해양산업협회

후원  바다사랑·해양강국
대한민국해양연맹  국립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상공회의소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BPAV |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

 부산항만물류협회
Korea Port Logistics Association, Busan Office  BNIC 금융그룹 부산은행  수협  PanStar  한국해운협회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HANIL 한일냉장주식회사  HJ 중공업